

경건한 사람이 되라

경건(ευσεβεια)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성경에 경건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기는 하지만(cf. 행3:12; 10:2,7; 17:23) 목회서신에서처럼 경건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 곳은 없다. 목회서신에서 경건이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말년에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목회자의 삶에 있어서 경건은 곧 능력이고 삶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바울의 목회서신에 나타난 경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건과 달랐다. 바울이 말하는 경건은 무엇이었을까?

1. 경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원래 경건함이란 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움추러 든 모습을 의미하기도 했다. 따라서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된 경우는 주로 예배나 제사를 드릴 때이다. 어쩌면 요즘에도 경건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서 경건한 모습은 엄숙한 모습, 조심스러운 모습을 연상시키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경건과 명랑은 함께 하기 어려운 것 같고 경건한 사람은 과묵하고 신중하고 차분한 성품이나 도덕적인 미덕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경건은 종교적인 행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건생활이란 기도와 말씀에 주력하는 생활이라고 생각해서 경건생활을 잘 하느냐는 질문은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느냐는 말과 일맥상통하기도 한다. 바울이 언급한 바 있는 경건의 모양(딤후3:5)이란 바로 종교적인 행위를 가리킬텐데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경계하라고 권한다(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경건의 능력이란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이다. 소위 말하는 경건생활이 삶 전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데도 그 모습만으로 만족한다면 참된 경건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바울이 경건의 모양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 능력이 없는 모양, 즉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구별된 시간과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대치되는 것이 아니다.

2. 목회서신에 나타난 경건에 관한 구절들

1) 진리와 경건

경건은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진리에 근거한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즉 그냥 차분함과 신중함이 경건이 아니다. 경건한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

a. 딤후3:16

경건의 비밀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아직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비밀이다(엡1:9). 경건한 삶이 신비스러운 삶이라는 의미도 아니고 영적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도 아니다. 비밀이란 이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계획(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통한 은혜를 깨달음이 곧 경건이다. 이것을 왜 경건의 비밀이라고 했을까? 이는 곧 경건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경건이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깨달음으로 그 은혜 앞에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경건이란 결국 복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경건은 단순한 내적 훈련이 아니라 복음에 반응함으로 나타난 모습이다.

b. 딤후 1:1; 딤후전 6:3

딤후전 6:3에서는 경건에 관한 교훈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동일시하고 있고 디모데후서에서는 경건이란 진리의 지식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도 경건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바울은 교훈과 삶을 분리하지 않는다. 진리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경건을 이루고 경건은 진리의 지식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확실히 변한다는 것이었다.

2) 경건한 삶

경건한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이다. 그런 점에서 경건한 삶은 필연적으로 도덕적인 삶인데 바울은 이러한 삶을 위해 훈련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훈련이란 우선은 의식의 훈련일 것이고 그러한 훈련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일 것이다.

a. 딤후전 4:7-8(경건의 연습)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바울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과 대조시켜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고 말한다. 즉 신비적인 행위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의미가 아닐까? 바울은 그것을 연습, 훈련이라고 한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육체의 연습이 금욕적인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욕적인 행위에 어떤 약간의 유익이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연습이 몸을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말하는 약간(προς ολιγον)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말하는 것이리라. 즉 육체를 단련하는 일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라면 경건은 금생과 내세에 유익한 것이다. 육체의 연습을 비하시킨 것이 아니라 경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godliness)이란 무엇일까?

가) 이것은 단순히 기도생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 의식을 연습하는 것이다 -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보다는 의식하지 않는데 더 익숙하다.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법을 연습하자.

b. 딤후 6:5-6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어떤 사람들(경건의 모양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론과 언쟁만을 일삼고, 이미 그 마음속에서 진리는 잃어버린 채(한 때는 진리를 가진 것처럼 보였으나) 생계의 수단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진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다투고 분쟁의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 그 자체가 이미 더할 수 없는 이익이다. 이 말은 바꾸어 생각해도 맞는다. 부자가 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기 시작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우는 욕심 때문에 부정과 횡령, 불법적인 일에 관여했을 때이다. 깨끗하면 자신이 있다. 깨끗하면 힘이 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부자가 되겠다 생각하면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쉽게 범할 수 있다. 너무 많은 경우에 타협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바로 생계유지가 아닌가!

c. 딤후 3:1-5

아이러니컬한 것은 2-4절까지의 내용은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도 경건의 모습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모습은 종교적인 모습이다.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공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경건의 모습이다. 좀 더 정확히는 경건한 척 할 때의 모습이라고 할까? 바울은 경건이 생활임을 강조한다. 경건의 능력은 기도와 말씀생활을 하면 안 되던 것이 잘되고 막혔던 것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고 휘방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3. 결론

그러므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한 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에 둔 소망으로 자신을 훈련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경건하게 사역하라고 간곡히 권한다. 오늘날 교회의 전임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바울이 강조한 경건이 얼마나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가!